

광주 도심공원 공중화장실 관리 부실 '심각'

수리 기간 공지 없이 하나뿐인 변기 파손된 채 방치 장애인 화장실 상태 심각하지만 일일점검표엔 '양호'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심공원 공중화장실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나뿐인 변기가 파손됐어도 대안이나 수리 기간 공지 없이 방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의 변기 시트와 등받이가 바닥에 널부러져도 상태 '양호'로 점검돼 실질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부어린이공원, 이른 아침부터 공원 정자에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로 북적였다.

또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채 걷다가 힘에 부치지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곳 공원이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자나 운동기구 등 각종 시설물의 정비·관리가 양호한 것과는 달리 공중화장실 상태는 그렇지 못했다.

한 남성 노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지만 하나뿐인 대변기가 파손된 채 방치된 탓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입을 모아 파손된 지 한참 지난 변기가 별다른 대책과 명



광주도심 곳곳 공중화장실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안재영 기자

확한 보수 기간 없이 방치돼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주민 임모(62)씨는 "지병이 있어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데 밖에 나오면 공중화

장실을 찾기 힘들어 이곳을 주로 이용해 왔는데 며칠째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외출마저 꺼리고 있다"며 "한 칸밖에 없는 화장실이면 이용객들의 불편을 생각해 서라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찾은 남구 사직동 광주공원 공중화장실은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직접 관리하는 곳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는 미흡했다.

화장실 내부에 부착된 일일점검표에 시설물 및 청소관리 상태가 모두 '양호'로 표시됐으나 정자대변기 상태는 지저분했다.

이웃매가 부서져 대변기 시트가 고정되지 않은 채 들쭉거렸고 등받이는 아예 떨어져 나간 채로 바닥에 널부러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인근 공원 내 다른 공용화장실과 달리 높은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고 문

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장애인 보조 손잡이 등이 설치돼 전동휠체어나 지팡이를 이끌고 다니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실제 사용이 어려워 이날 시민들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 오모(58)씨는 "매일 점검을 진행한다고 표시돼있는데 (이러한) 화장실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간단한 보수작업이 안 돼 전동휠체어를 이끌고 공원 꼭대기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14일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정비 상태를 확인해 파손된 기물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광주공원 화장실 내 파손된 변기는 금일 아침 파악해 현재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헌혈에 동참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인구가 크게 줄어든 14일 오전 광주 남구청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열려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불필요한 지장물 철거 용역 계약" 고발·수사 의뢰

광주시민단체, 조합 14곳 업무상 배임 주장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지역 내 재개발조합의 비위를 자체 조사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필요한 지장물 철거 용역 계약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과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본부, 정의당 광주시당 등 대표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역 조합 2곳을 고발하고, 12곳 조합 측을 수사 의뢰했다.

광주 월산 1구역과 임동 2구역 등의 전

·현직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장물 철거가 한전, 통산사 등 각 기관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하면 되는 사안인데, 별도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이증으로 체결해 공사비를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사비를 이중 지급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끼쳐 조합 측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대책위와 정의당은 같은 혐의로 학생, 계림동, 지원동, 관천동, 양동, 임동, 중흥동, 신기동, 운암동 등 광주지역 내 12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며 수사요청서를 별도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과 수사요청서를 받고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분석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사건들은 이미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수사는 광주경찰청 외에도 각 경찰관서 수사부서로 나눠 배당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과 수사요청서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가려지면 이를 나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5·18 마지막 방송' 여대생, 국가 배상 승소

법원 "1천500만원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뒤 육고를 치른 여대생이 41년 만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국가 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박모(6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방송실에서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

습니다. 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방송했다. 이는 계엄군의 진압을 앞둔 시민군의 마지막 방송으로 알려져 영화 '화려한 휴가'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다.

이후 박씨는 계엄군에게 불합격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6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박씨는 35년이 지난 2015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체포·구속 등 일련의 공무집행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국가는 박씨 및 박씨의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박씨가 이미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1990년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고의 사고 뒤 車 태워 강도·성범죄 징역 9년 술자리 동석 여성 무차별 폭행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성을 차량에 가둬 강도·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지역 한 공동주택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차량 후사경으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의 팔을 고의 충격한

뒤 B씨를 차에 가두고 손가방을 빼앗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1km가량 몰래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광주에서 40대 여성이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동구 모 식당에서 지역 내 사회(MC) 등을 맞아 진행하는 여성 A(43)씨가 함께 동석한 일행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

동석한 B씨는 지역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이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더니 다짜고짜 무차별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전 특별보좌관 출신 C씨, 현직 경찰 간부 D씨 등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